벤 처 C E O 포 럼 지 상 중 계

미래 신성장동력 강화 위한 산업별 전략 구축해야

'벤처코리아2005'의 첫 프로그램인 '벤처 CEO 포럼'이 10월 13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됐다. 본지 84호 'VD Issue'에 게재된 '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 벤처의 산업별 발전 전략'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.

⊙ ⊙ **사회** : **정승화**(연세대학교 교수)

⊙ ⊙ **주제발표** : **임윤철**(기술과가치 대표)

⊙ ⊙ **패널** : **정준**(쓸리테크 대표), **전진옥**(비트컴퓨터 대표), **주현**(산업연구원 연구위원), **박종세**(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)

⊙ **정준** : 부품소재산업분야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초기 성공 후 경쟁력 있게 사업을 영위하려면 그에 걸맞게 규모가 커져야 한다. 따라서 성공한 회사들에 초점을 맞춰 M&A 활성화 등 적절한 규모로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. 또한 벤처기업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,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1조클럽을 많이 키워야 할 것이다.

⊙ **전진옥** :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려면 특화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. 패키지소프트웨어는 M&A를 활성화하고,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한다. 또한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는 경쟁력 있는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. 불법복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의 변화와 사용자 증가로 인한 재개발 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.

⊙ **주현** : 기업 외부에 있는 혁신자원들을 기업과 결합시켜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벤처기업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.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. 이 부분에서 성장단계의 벤처기업에게 규모가 큰 기술개발과제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. 또한 조달구매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적 정책이 필요하고, 업계에서도 연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.

⊙ **박종세** : 상당한 시간과 자본 투여가 필요한 BT 분야에서 바이오벤처의 M&A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이다. 성숙·성장 단계에서 M&A를 거쳐야 한다면, 기술을 팔려고 하는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. 또한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펀드의 듀레이션 기간도 완화해야 한다.